



2024학년도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

삼례중학교
가정통신문 제 30호

2024년 4월 19일

(우)5534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53-23

☎ 063-291-2624

<http://samrye.ms.kr>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바람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꽃망울이 이제 완전한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 장애 인권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모두가 행복한 구성원이 살아가는 행복한 삼례중이 되길 기대합니다.

1 통합교육이란?

학교는 작은 예비 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은 또래와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고,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Q. 장애가 있거나, 통합교육지원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요.

둘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면 절대 안돼요.

셋째, 장애인이나 특수학급(도움반, 개별학습반, 통합교육지원반 등) 이름을 부르지 말고 친구의 이름을 불러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요.

다섯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요.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차이를 존중하면 모두가 특별해집니다”

삼례중학교장 [관인생략]